

#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경음화 교육 방안 제안

Hoàng Nguyễn Phương<sup>1</sup>, Huỳnh Mỹ Nhật<sup>2</sup>

<sup>1</sup> Khoa Ngôn ngữ và Văn hóa phương Đông, Trường Đại học Ngoại ngữ - Tin học TP.HCM

<sup>2</sup> Trường ĐH AJOU (Hàn Quốc)

[phuongnh@huflit.edu.vn](mailto:phuongnh@huflit.edu.vn), [huynhmynhat131@gmail.com](mailto:huynhmynhat131@gmail.com)

**논문 초록**—이 연구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경음화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표준 발음법에 제시된 경음화 규칙을 검토하고,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는 경음화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베트남어에는 한국어 경음에 대응하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경음 발음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 경음 발음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 체계 차이가 학습자의 발음 어려움의 주요 원인임을 밝혔으며, 기존 교재와 교육 방법이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비록 제안된 교육 방안이 학습자들의 경음화 습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험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는 제안된 방안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과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키워드**—경음화, 경음 발음, 경음화 교육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한국어 교재 내용 분석을 통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경음화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표준 발음법에서 제시된 경음화 내용을 검토하고, 선정된 한국어 교재 속에 경음화 관련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인 학습자가 경음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발음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모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 차이로 인해 특히 경음 발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 자음은 평음, 경음, 격음으로 분류되는데 베트남어 자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한국어와 같은 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음은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어려워 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경음 /ㅃ/, /ㅆ/, /ㅈ/은 베트남어에 대응 되는 소리가 없어 베트남 학습자들이 발음할 때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1: p.70]. 베트남어는 유성무기, 무성무기, 무성유기 자음을 구분하지만, 긴장성에 따른 자음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어는 평음, 경음, 격음으로 나뉘며 긴장성과 기식성이라는 특성에 따라 자음이 구분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경음을 발음할 때 혼란을 겪으며, 이는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유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달’과 ‘딸’은 한국어에서 의미를 구별하는 중요한 자음 차이를 보여준다. ‘달’은 평음이고, ‘딸’은 경음이다. 그러나 베트남어에는 이러한 긴장성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이 두 단어의 발음 차이를 구별하고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달’을 ‘딸’로, ‘딸’을 ‘달’로 잘못 발음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베트남인 학습자가 효율적으로 한국어 경음화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본론

### A. 선행 연구 검토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경음화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교재 분석, 교육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본 장에서는 특히 경음화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이들 연구가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교육에 미친 영향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영선 (2022)[2]는 베트남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경음화 발음 학습을 돕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며, 음성학적, 음운론적 접근을 통해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구하였다. 이 연구는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한국어 발음 교육의 기초를 다지는 데 의의가 있으나, 제안된 방안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는 방식과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유사한 연구로, PHAM THI THUY LINH [1] 는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발음 오류를 구체적으로 탐구하여, 성조 언어권 학습자에게 유용한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들의 모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발음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성조 언어권 학습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경[3]은 한국어 발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 현황을 고찰하고, 보다 체계적인 경음화 발음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학습자가 효과적으로 경음화 발음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서이 [4] 는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음화 발음 학습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안하며, 음성학적, 음운론적 접근을 통한 학습자 오류 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발음 교육의 기초를 다졌지만,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김현우[5]와 HUA NGUYEN MINH THAO [6] 의 연구는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방안을 제안하며,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 발음 교육에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 차이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학습자가 겪는 발음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학습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지숙 [7] 과 부하프영[8]은 베트남 출신 학습자가 한국어 경음화 발음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분석하며, 효과적인 발음 교육 방법론을 탐구하였다. 이 연구들은 베트남어권 학습자의 음운 체계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음화 교육 방안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학습자가 겪는 발음 오류를 줄이는 데 필요한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경음화 발음 교육의 기초와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대다수 연구가 특정 언어권 학습자에게 국한되어 있어, 베트남인 학습자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베트남어권 학습자가 경음 발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B. 경음화 관련 규정**

한국어 교재 속에 경음화와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기 전에 표준 발음법의 제 6 장[9]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음화 규정을 살펴보자. 동시에 본 연구는 표준 발음법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설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리하고자 한다.

경음화는 평음 /ㄱ, ㄷ, ㅂ, ㅅ, ㅈ/이 일정한 환경에서 경음인 /ㄱ', ㄷ', ㅂ', ㅅ', ㅈ'/로 바뀌는 현상이다. 신지영[10: p.281]에서 한국어는 음운구 내에서 장애음과 평장애음의 연쇄를 허용하지 않는데 만약 이러한 소리의 연쇄가 음운구 내에서 관찰된다면 후행하는 평장애음은 경음으로 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11: p11, p281]. 다음은 국립국어원의 표준 발음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경음화 부분이다.

<b>제 2 부 표준 발음법</b>			
<b>제 6 장 경음화</b>			
<b>제 23 항</b> 받침 ‘ㄱ(ㄱ, ㅋ, ㆁ), ㄷ(ㄷ, ㅌ, ㄴ), ㅂ(ㅃ, ㅍ, ㅁ)’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국밥[국뻬]	깎다[깎따]	넋받이[넋뻬지]	삿돈[삿뉰]

닭장[닥짱]	칙범[칙뽵]	뽀대다[뽀때다]	웃고름[올꼬름]
있던[일뉘]	꽃고[꼴꼬]	꽃다발[꼴따발]	낫설다[날썰다]
밭갈이[밭까리]	솔전[솔뉘]	곱돌[곱뉘]	덧개[덧개]
옆집[엿집]	넙죽하다[넙쭈카다]	윙조리다[윙쭈리다]	값지다[갑찌다]

<표준발음법> 규정에 따르면, 받침이 [ㄱ, ㄷ, ㅂ]로 발음되고, 그 뒤에 오는 소리도 [ㄱ, ㄷ, ㅂ, ㅅ, ㅈ]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받침의 발음 중에서 장애음은 [ㄱ, ㄷ, ㅂ] 세 가지 뿐이며, 경음 짝을 가진 평음은 ‘ㄱ, ㄷ, ㅂ, ㅅ, ㅈ’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 단어 내에서뿐만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명사와 조사가 결합할 때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제 24 항**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신고[신:꼬]	껴안다[껴안따]	앉고[안꼬]	엎다[언따]
삼고[삼:꼬]	더듬지[더듬찌]	닭고[담:꼬]	젓지[점:찌]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안기다	감기다	굽기다	웁기다
-----	-----	-----	-----

제 24 항은 비음으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뒤에 어미가 붙을 때 일어나는 경음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비음 중에서 ‘ㄴ, ㅁ’만 포함된 이유는 ‘ㅇ’으로 끝나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이 없기 때문이다. 경음화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뒤에 피동, 사동 접미사가 결합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제 25 항** 어간 받침 ‘ㄹ, ㅍ’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넙게[넙께]	핥다[핥따]	흙소[흙쏘]	떨지[떨:찌]
--------	--------	--------	---------

제 25 항은 받침 ‘ㄹ, ㅍ’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경음으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받침 ‘ㄹ, ㅍ’은 ‘발다’, ‘넙둥글다’, ‘넙죽하다’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 [ㄹ]로 발음된다. 이 경음화 현상에서 중요한 점은, 원래의 용언 어간 말음 /ㄹ, ㅍ/일 때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중간 단계에서 [ㄹ]로 발음되면 경음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래 음이 /ㄹ/인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제 26 항**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ㅂ, ㅅ’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갈등[갈뉘]	발동[발뉘]	절도[절뉘]	말살[말쌀]
불소[불쏘](弗素)	일시[일씨]	갈증[갈쑹]	물질[물쑹]
발전[발뉘]	물상식[물쌍식]	불세출[불쑤출]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허허실실[허허실실](虛虛實實)	절절-하다[절절하다](切切-)
------------------	------------------

제 26 항은 한자어에서는 앞 음절의 받침이 /ㄹ/일 때, 뒤에 오는 자음이 /ㄷ, ㅂ, ㅅ/인 경우에만 경음화가 제한적으로 일어난다. 즉, /ㄹ/ 뒤에서 [+설정음] 자질을 가진 장애음만 경음화가 된다. 따라서 ‘물건’, ‘절기’, ‘결과’, ‘출고’, ‘활보’, ‘불복’처럼 /ㄹ/ 뒤의 자음이 /ㄱ/이나 /ㅂ/인 경우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다.

**제 27 항**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할 것을[할꺼술]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갈 곳[갈꼴]	할 도리[할뜨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다만, 끊어서 말할 적에는 예사소리로 발음한다.

[불임]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할걸[할겅]	할밖에[할빠께]	할세라[할써라]	할수룩[할쑤룩]
할지라도[할찌라도]	할지언정[할찌언정]	할진대[할찐대]	

제 27 항은 관형사형 어미 중 ‘-(으)르’ 뒤에서 발생하는 경음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관형사형 어미 ‘-(으)르’은 뒤에 오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을 모두 경음화한다. 한자어에서 /ㄹ/ 뒤의 자음이 /ㄷ, ㅅ, ㅈ/일 때만 경음화가 제한적으로 일어났다면, 관형사형 어미 ‘-(으)르’ 뒤에서는 그런 제한 없이 /ㄱ, ㄷ, ㅂ, ㅅ, ㅈ/을 거의 모두 경음화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 28 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동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새]
손-재주[손째주]	길-가[길까]	물-동이[물똥이]	발-바닥[발빠닥]
굴-속[굴:속]	술-잔[술잔]	바람-결[바람겅]	그믐-달[그믐말]
아침-밥[아침빔]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말]
등-불[등뿔]	창-살[창쌀]	강-줄기[강쫄기]	

제 28 항은 사이시옷 현상으로서의 경음화 중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어의 사이시옷은 단어를 합성할 때 발생하는 발음 변화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문-고리’에서 [문꼬리], ‘그믐-달’에서 [그믐말], ‘발-바닥’에서 [발빠닥], ‘산-새’에서 [산새], ‘손-재주’에서 [손째주]와 같이 뒤 단어의 첫 소리가 /ㄱ, ㄷ, ㅂ, ㅅ, ㅈ/인 경우 경음화되는 것도 이러한 발음 변화 중 하나다. 또한 표준 발음법의 제 12 항[9]에서도 경음화가 제시되어 있다.

2. ‘ㅎ(Lḥ, ḥ)’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달소[다:쏘]	만소[만:쏘]	실소[실쏘]
---------	---------	--------

‘ㅎ(Lḥ, ḥ)’ 뒤에 ‘ㅅ’이 결합할 때, ‘ㅎ’을 발음하지 않고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예를 들어, ‘달소[다:쏘]’와 같은 경우다. 이 현상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ㅎ’과 ‘ㅅ’이 바로 합쳐져 [ㅆ]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ㅎ’이 먼저 ‘ㄷ’으로 바뀌고(ㅎㅅ→ㄷㅅ) 그 뒤에 ‘ㅅ’이 경음으로 바뀌면서(ㄷㅅ→ㄷㅆ) 마지막에 ‘ㄷ’이 탈락해 [ㅆ]이 된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방식은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각 단계를 실제 발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경음화가 나타는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교재에서 경음화를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다음 4 장에서 분석하도록 하겠다.

**C.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경음화 분석**

본 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경음화 교육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교재는 『연세 한국어 읽기』 1, 2 와 『새 연세 한국어 듣기와 읽기』 1-1~2-2 로, 총 6 종의 교재이다. 그리고 교재는 출판년 순서로 제시된다.

『연세 한국어 읽기』 교재를 선정한 이유는 이 교재가 현재까지 베트남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연세 한국어 듣기와 읽기』 교재를 선정한 이유는, 이 교재가 『연세 한국어 읽기』 보다 최근에 출판된 교재로서, 두 교재의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연세 한국어 읽기**

『연세 한국어』 교재는 2008 년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개발한 한국어 교육 교재로, 다양한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체계적인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교재는 문법, 읽기, 활용연습 등과 같은 기능별에 따라 나누고 있으며, 그 중에서 발음 내용은 주로 읽기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다. 『연세 한국어 읽기』 시리즈는 1 권부터 6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음화에 대한 내용은 1 권과 2 권에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음화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연세 한국어 읽기 1』 [12]의 뒷부분을 보면, 경음화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표 1> 『연세 한국어 읽기 1』 ‘경음’ 영역 구성의 실제

<p><b>7</b> 과</p> <p>원소리 되기 1 Tensification (1)</p> <p>받침 [ㄱ, ㄷ, ㅂ] 뒤의 /ㄱ/ → [ㄲ]</p> <p>In cases where a syllable ends with [ㄱ, ㄷ, ㅂ] and the first sound of the following syllable is /ㄱ/, the latter /ㄱ/ is pronounced as the tensed sound [ㄲ].</p>	<p><b>14</b> 과</p> <p>원소리 되기 2 Tensification (2)</p> <p>받침 [ㄱ, ㄷ, ㅂ] 뒤의 /ㄷ/ → [ㄸ]</p> <p>When a syllable ends with [ㄱ, ㄷ, ㅂ] and the following syllable begins with /ㄷ/, the sound of /ㄷ/ changes to the tensed sound [ㄸ].</p>
<p><b>19</b> 과</p> <p>원소리 되기 3 Tensification (3)</p> <p>받침 [ㄱ, ㄷ, ㅂ] 뒤의 /ㅅ/ → [ㅆ]</p> <p>When a syllable ends with [ㄱ, ㄷ, ㅂ] and the following syllable begins with /ㅅ/, the sound of /ㅅ/ changes to the tensed sound [ㅆ].</p> <p>In addition, in cases where a word is derived from</p>	<p><b>29</b> 과</p> <p>원소리 되기 4 Tensification(4)</p> <p>받침 [ㄱ, ㄷ, ㅂ] 뒤 /ㅈ/ → [ㅉ]</p> <p>When a syllable ends with [ㄱ, ㄷ, ㅂ] and the following syllable begins with /ㅈ/, the sound of /ㅈ/ change to the tensed sound [ㅉ].</p>

이 부분에서는 경음화의 기본 개념과 자음 결합할 때 소리 변화를 설명하며, 특히 경음화가 발생하는 환경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각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표 2> 『연세 한국어 읽기 1』 ‘경음’ 영역 구성의 실제

<p>7 과</p> <p>‘ㄱ, ㄷ, ㅂ’ + ‘ㄱ’ → [ㄲ]</p>	<p>읽어 봅시다 [CD1: 3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학교] 저는 날마다 학교에 갑니다.</li> <li>• 먹고[먹고]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십니다.</li> <li>• 듣고[듣고]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li> <li>• 입고[입고] 한복을 입고 춤을 춥니다.</li> <li>• 잡고[잡고] 손을 잡고 웃습니다.</li> </ul> <p>제7과 우리 학교 35</p>
<p>14 과</p> <p>‘ㄱ, ㄷ, ㅂ’ + ‘ㄷ’ → [ㄸ]</p>	<p>읽어 봅시다 [CD1: 4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당[식당]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li> <li>• 찍다[찍따] 사진을 찍다가 웃습니다.</li> <li>• 있다[있따] 신촌에 한국어학당이 있다.</li> <li>• 꽃다발[꽃따발] 꽃다발을 선물합니다.</li> <li>• 덩다[덩따] 오늘은 날씨가 덩다.</li> </ul> <p>제14과 식당 67</p>

<p>19 과</p> <p>‘ㄱ, ㄷ, ㅂ’ + ‘ㅅ’ → [ㅆ]</p>	<p><b>읽어 봅시다 [CD1: 55]</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속[약속] 오늘 오후에 친구와 약속이 있습니다.</li> <li>·학생[학생] 한국어학당에는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있습니다.</li> <li>·비빔국수[비빔국수] 저는 비빔국수를 좋아합니다.</li> <li>·몇 사람[몇사람] 오늘 몇 사람이 옵니까?</li> <li>·하십시오[하십시오] 이 일을 조금 서둘러서 하십시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제19과 나의 하루 89</p>
<p>29 과</p> <p>‘ㄱ, ㄷ, ㅂ’ + ‘ㅅ’ → [ㅆ]</p>	<p><b>읽어 봅시다 [CD2: 18]</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제[숙제] 날마다 숙제가 많습니다.</li> <li>·맥주[맥주] 친구와 맥주를 마셨습니다.</li> <li>·받지[받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li> <li>·골장[골장] 골장 집에 가십시오.</li> <li>·잡지[잡지] 도서관에서 잡지를 읽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제29과 휴대전화 137</p>

경음화는 1 급에 나타나며, 7 과, 14 과, 19 과, 29 과에서 설명하고 있다. 네 과에서 제시된 경음화 내용은 표준 발음법 제 23 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평파열음 받침 ‘ㄱ, ㄷ, ㅂ’ 뒤에서의 경음화 현상을 ‘학교[학꾜]’(7 과), ‘식당[식땡]’(14 과), ‘약속[약속]’(19 과), ‘숙제[숙제]’(29 과) 등의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다.

『연세 한국어 읽기 2』 [13]에서는 경음화를 규정과 예시를 같이 보여주면서 제시하고 있다.

<표 3> 『연세 한국어 읽기 2』 ‘경음’ 영역 구성의 실제

15 과

**읽어 봅시다 [CD: 30]**

된소리 1 /ㄱ, ㄷ, ㅂ, ㅅ, ㅆ/

- 반쪽 드디어 인생의 반쪽을 만났습니다.
- 기쁨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큰 기쁨이 되겠습니다.
- 불꽃 불꽃축제 전에 유명한 가수들의 공연도 있습니다.
- 말, 뜨거운, 떡국 딸들이 앉아서 뜨거운 떡국을 먹습니다.
- 씻은, 썰어서, 쌀국수 양파를 잘 씻은 후에 썰어서 쌀국수에 넣었어요.

## 16 과

## 읽어 봅시다 [CD: 32]

된소리 2 받침 [ㄱ, ㄷ, ㅂ] 뒤의 /ㄱ/ → /ㄴ/

- 받기[받끼], 했기[했끼] 내가 부케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마음이 설레었다.
- 6개월[육개월] 부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결혼해야 하는데요.
- 떡국[떡꾹], 먹고[먹고]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 학교[학교], 듣고[듣고] 학교에서 한국 노래를 듣고 노래를 배웠습니다.
- 갈아입고[가리입고] 결혼식이 끝나면 한복으로 갈아입고 인사를 합니다.

## 17 과

## 읽어 봅시다 [CD: 34]

된소리 3 받침 [ㄱ, ㄷ, ㅂ] 뒤의 /ㄷ/ → /ㄸ/

- 한복도[한복도], 떡도[떡도] 나는 한옥 마을에서 한복도 입어 보고 떡도 먹어 봤다.
- 식당[식당] 이 근처에 음식을 잘하는 식당이 있어요?
- 탕다[탕따] 오늘 서울 시내를 구경하는 서울 도심순환버스를 탔다.
- 없다[업따] 요즘은 방학이어서 학생이 별로 없다.
- 곳도[곳도], 싫다[싫따] 다음에는 다른 곳도 구경하고 싶다.

## 18 과

## 읽어 봅시다 [CD: 36]

된소리 4 받침 [ㄱ, ㄷ, ㅂ] 뒤의 /ㅈ/ → /ㅉ/

- 노약자[노약찌] 지하철 안에는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 숙제[숙찌] 저는 가끔 지하철 안에서 숙제를 합니다.
- 듣지[듣찌] 너무 시끄러워서 안내방송을 듣지 못했습니다.
- 청첩장[청첩짱] 제 청첩장인데요, 다음 달 첫째 토요일입니다.
- 잡지[잡찌] 지하철 안에서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 19 과

## 읽어 봅시다 [CD: 38]

된소리 5 받침 [ㄱ, ㄷ, ㅂ] 뒤의 /ㅅ/ → /ㅆ/

- 옥수역[옥수역] 옥수역에는 예쁜 색이 많습니다.
- 약속[약씩], 앉겠습니까[안켄씀니까] 여러분도 이런 지하철역에서 약속을 해 보지 앉겠습니까?
- 몇 사람[몇싸람], 있습니까[일씀니까] 교실에 몇 사람 있습니까?
- 역사[역싸], 하겠습니까[하겐씀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을 소개하겠습니다.
- 답십리역[답쌌니역] 답십리역에 가면 고미술 상가들이 많습니다.

『연세 한국어 읽기 2』 [13]에서는 경음화 현상을 15 과, 16 과, 17 과, 18 과, 19 과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다섯 과에서 제시된 경음화 내용은 『연세 한국어 읽기 1』 처럼 표준 발음법 제 23 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세 한국어 읽기 1』에 비해 『연세 한국어 읽기 2』에서는 경음화 내용을 더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평파열음 받침 'ㄱ, ㄷ, ㅂ'의 경우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경우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했기[했끼]'(16 과), '없다[업따]'(17 과), '몇 사람[몇싸람]'(19 과), '답십리역[답쌌니역]'(19 과) 등의 예시와 함께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연세 한국어 읽기 1』은 경음화의 기초 이해에 중점을 두고, 『연세 한국어 읽기 2』는 학습자들이 경음화를 실제 발음과 문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 2. 새 연세 한국어 듣기와 읽기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연세 한국어』 1 급부터 6 급의 뒤를 잇는 새로운 교재로 『새 연세한국어』 시리즈를 출간했다. 이 시리즈는 총 6 단계로, 각 단계마다 어휘와 문법, 말하기와 쓰기, 듣기와 읽기 교재로 구성되어 있다.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에서는 발음 교육을 다루고 있다. 교재의 각 항목은 ‘제목, 학습 목표, 준비해 봅시다, 읽어 봅시다, 들어 봅시다, 따라 해 봅시다, 정리해 봅시다’의 5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는 듣기와 읽기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단원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듣기 활동과 읽기 활동의 순서를 다르게 구성했다. ‘따라 해 봅시다’ 부분은 발음 연습을 위한 것으로, 교재의 읽기나 듣기 지문에 나오는 어휘 중 음운 변화가 포함된 단어나 학습자들이 자주 틀리는 발음을 선택하여 연습할 수 있게 했다.

<표 4>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1-1, 1-2』 [14], [15]교재의 음운현상 구성 내용

4 과	경음화 (평파열음화 후 경음화) ○ 왔습니다[왁쌘니다]    있습니다[임쌘니다]
6 과	경음화 ‘ㄱ’ + ‘ㅅ’ → [ㅆ] ○ 먹습니다[먹쌘니다]    작습니다[작쌘니다] 경음화 (평파열음화 후 경음화) ○ 읽고[일꼬]                밝고[발꼬]
7 과	경음화 (평파열음화 후 경음화) ○ 맛있습니다[마딛쌘니다/마실쌘니다] ○ 멋있습니다[머딛쌘니다/머실쌘니다] ○ 값도[갑또]                없다[업따]
9 과	경음화 ‘ㅂ’ + ‘ㅅ’ → [ㅆ], ‘ㅂ’ + ‘ㅈ’ → [ㅆ] ○ 아름답습니다[아름답쌘니다]    입습니다[입쌘니다] ○ 시끄럽지[시끄럽찌]                좁지[좁찌]
10 과	경음화 (평파열음화 후 경음화) ○ 늦게[늘께]                곳감[곧깜]
12 과	경음화 ‘ㄱ’ + ‘ㄱ’ → [ㄱ] ○ 창덕궁[창덕궁]                학교[학꼬]
16 과	경음화 (한자어 경음화) ○ 철도[철또]                갈대[갈때]
17 과	경음화 ‘ㄱ’ + ‘ㅂ’ → [ㅃ] ○ 똑바로[똑빠로]                국방부[국빵부]
18 과	경음화 (평파열음화 후 경음화) ○ 같습니다[갸쌘니다]    말합니다[말쌘니다]
19 과	경음화 (한자어 경음화) ○ 여권[여권]                승차권[승차권]
20 과	경음화 ‘ㅂ’ + ‘ㅅ’ → [ㅆ] ○ 쉽습니다[쉽쌘니다]

경음화는 1 급 교재에서 나타나며, 4 과, 6 과, 7 과, 9 과, 10 과, 12 과, 16 과, 17 과, 18 과, 19 과, 20 과에서 제시하고 있다. 『연세 한국어 읽기』 교재에 비해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교재는 같은 1 급임에도 경음화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4 과에서는 ‘왔습니다[왁쌘니다], ‘있습니다[임쌘니다]와 같은 예시를 통해 평파열음화 후 경음화 현상을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7 과, 10 과, 18 과에서도 이 현상을 다루었지만 다른 예시를 사용하여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맛있습니다[마딛쌘니다/마실쌘니다], ‘늦게[늘께], ‘같습니다[갸쌘니다] 등이 평파열음화 후 경음화의 예시로 제시되었다. 또한, 6 과, 9 과, 12 과, 17 과, 20 과에서는 평파열음인 받침 ‘ㄱ, ㄷ, ㅂ’ 뒤의 경음화 현상을 ‘먹습니다[먹쌘니다],



‘아름답습니다’[아름답습니다], ‘창덕궁’[창덕궁], ‘똑바로’[똑바로] 등의 예시와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6 과, 7 과에서는 겹받침 발음의 경음화 현상을 ‘읽고’[읽꼬], ‘값도’[값또] 등의 예시를 사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16 과와 19 과에서는 한자어 단어에서 경음화 현상을 다루었으며, 예를 들어 ‘철도’[철또], ‘여권’[여편] 등을 제시하였다.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2』는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1』과는 달리 음운 현상을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설명하였다.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1』은 음운 현상을 순서 상관없이 보여줬지만,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2』에서는 모든 음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표 5>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2-1』 교재의 음운현상 구성 내용

8 과	<된소리 1> /ㄱ/ /ㄷ/ /ㅃ/ /ㅅ/ /ㅆ/ 꼭 또 예쁘다 써서 짝다 <된소리 2> 받침[ㄱ, ㄷ, ㅂ] 뒤의 /ㄱ/ → [ㄱ] ○ 학교[학꼬] 받기[받끼] 입고[입꼬]
9 과	<된소리 3> 받침[ㄱ, ㄷ, ㅂ] 뒤의 /ㄷ/ → [ㄷ] ○ 좋겠다[조켄따] 고맙다[고맙따] 식당[식땅] <된소리 4> 받침[ㄱ, ㄷ, ㅂ] 뒤의 /ㅈ/ → [ㅈ] ○ 갑자기[갑짜기] 숙제[숙제] 듣지[듣찌]
10 과	<된소리 5> 받침[ㄱ, ㄷ, ㅂ] 뒤의 /ㅅ/ → [ㅅ] ○ 식당[식땅] 달습니다[달쌘니다] 어렵습니다[어렵쌘니다]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2-1』에서는 8 과부터 10 과에서 나오는 음운 현상으로 ‘경음화’를 다루고 있다. 이 교재에서는 받침 [ㄱ, ㄷ, ㅂ] 뒤에 오는 [ㄱ, ㄷ, ㅈ, ㅅ]이 각각 [ㄱ, ㄷ, ㅅ, ㅆ]으로 발음되는 경음화를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8-2 과에서는 ‘[ㄱ, ㄷ, ㅂ]+ㄱ→ㄱ’, 9-1 과에서는 ‘[ㄱ, ㄷ, ㅂ]+ㄷ→ㄷ’, 9-2 과에서는 ‘[ㄱ, ㄷ, ㅂ]+ㅈ→ㅈ’, 10-1 과에서는 ‘[ㄱ, ㄷ, ㅂ]+ㅅ→ㅅ’으로 규칙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예시를 통해 발음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학교[학꼬], 좋겠다[조켄따], 갑자기[갑짜기], 달습니다[달쌘니다]’ 등이 경음화의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연세 한국어 교재는 1 급, 2 급 교재에서만 발음 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다. 초급에서 발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연세 한국어 읽기 2』 교재와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2-1』 교재에서 제시되어 있는 경음화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연세 한국어 읽기 1』 교재와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1-1, 1-2』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연세 한국어 읽기 1』에서는 1 급이지만 경음화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규칙을 제시하며, 각 단어와 문장 예시도 제공해 주었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1 급에서는 학습자들이 경음화에 대한 개념을 아직 어렵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1』에서는 음운적 규칙 설명이 없고 어휘와 발음표기만 제시된다. 한 문장만 예시로 제공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규칙을 충분히 연습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초급 교재로서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면 학습자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예시를 통해 만들어진 두 개의 문장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발음 규칙을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2-1』 [16]에서는 경음화를 설명할 때 작은 오류가 있다.

<된소리 3> 받침 [ㄱ, ㄷ, ㅂ] 뒤의 /ㄷ/ → /ㅈ/  
 좋겠다[조켄따] 고맙다[고맙따] 식당[식땅]  
 • 금요일에 만나면 좋겠다.  
 • 연락해 줘서 고맙다.  
 • 이 근처에 맛있는 식당을 알아요?

[16: p.77]

<된소리 3> 받침 [ㄱ, ㄷ, ㅂ] 뒤의 /ㅈ/ → /ㅆ/  
 갑자기[갑짜기] 숙제[숙제] 듣지[듣찌]  
 •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 숙제를 하지 못해서 걱정이예요.  
 •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16: p.81]

<그림 1>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2-1』 교재의 표시 오류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2-1』 [16] 교재에서는 <그림 1>을 보면 경음화를 설명할 때 제시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된소리 3>이 두 번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작은 오류이지만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학습자들이 두 규칙을 하나로 오인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위 내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경음화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I. 경음화 교육 제안 방안

지금까지 현행 한국어 경음화 규정과 한국어 교재 속에 제시되어 있는 경음화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본고는 경음화를 잘 파악할 수 있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제안을 제시하겠다. 본 연구에서 효과적인 발음 교육의 단계 설정은 김정숙[17]에서 제시한 ‘도입→제시→연습→사용→마무리’의 발음 교육 방안을 참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도입 및 제시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베트남인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발음 차이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이를 통해 두 언어의 음가 차이와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발음 교육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연습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경음 발음을 배우게 된다. 교사는 시범을 통해 발음의 특징과 발음 시기의 세기 차이를 강조하고, 학습자들은 이를 반복 연습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발음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사용 단계**는 학습자들이 배운 발음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이다. 발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확한 발음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연습을 넘어서,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에서 배운 발음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발음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마무리 단계**는 오늘 학습한 음운현상의 단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며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며 마무리한다.

본 연구는 경음화 수업 지도안을 설계하고, 동시에 경음화 연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도안 설계 시 초급 학습자에 집중하여, 초급 교재 분석을 통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경음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다.

<표 6> 초급 학습자를 위한 경음화 수업 지도안

수업 내용		경음화 (평파열음 뒤 경음화)	학습자 수준	초급
학습 목표		평파열음 뒤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		
단계	시간(분)	학습 내용		학습 자료
도입	5	- 한국어 경음, 경음화의 중요함을 간단히 소개 - 경음 소개  [자다]  [짜다]		- 짧은 동영상 시청 - 사진
제시 및	15	① 경음화 개념 설명		

<p><b>설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음화란 무엇인가?</li> <li>예시: 식당[식당] 등</li> </ul> <p>② 설명</p> <p>- 'ㄱ, ㄷ, ㅂ' + 'ㄱ, ㄷ, ㅂ, ㅅ, ㅈ' → [ㄱ, ㄷ, ㅂ, ㅅ, ㅈ]</p> <p>→ 학습자들에게 경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설명해 준다.</p> <p>- 각 경음화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 제시.</p> <p>예시:</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학교] 학생[학생]</li> </ul> <p>- 다양한 예시 제시</p> <p>- 예시 따로 제시 또는 나누지 않고 제시</p>	<p>- 음성 파일</p> <p>- 판서 또는 PPT</p>
<p><b>연습</b></p>	<p>10</p>	<p>- 경음화 현상이 포함된 단어, 문장, 대화문 등을 통해 반복 연습</p> <p>① 잘 듣고 맞는 발음을 고르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1) [학교] (2) [학교]</li> <li>학생 (3) [학생] (4) [학생]</li> </ul> <p>② 단어의 맞는 발음을 쓰세요.</p> <p>(1) 국밥[ ] (2) 달다[ ] (3) 잡다[ ]</p> <p>③ 경음화 부분을 찾아보세요.</p> <p>(1) 숙제를 하지 못해서 걱정이예요.</p> <p>(2)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어요.</p> <p>(3) 목감기에 걸렸어요.</p>	<p>- 교사는 교재 참고 또는 직접 만들기</p>
<p><b>활용</b></p>	<p>15</p>	<p>&lt;게임하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습 문장을 보고 읽어봅시다 (학습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b>작은 토끼 토끼통 옆에는          큰 토끼 토끼통이 있고          큰 토끼 토끼통 옆에는          작은 토끼 토끼통이 있다.</b> </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출처: <a href="https://m.post.naver.com">https://m.post.naver.com</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연습 문장 찾기 (교사)</li> </ul>	
<p><b>마무리</b></p>	<p>5</p>	<p>-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과제를 제시한다.</p>	
<p><b>학습 활동지</b></p>			

**1. 단어의 맞는 발음을 쓰십시오.**

- ①떡국[ ]    ②학교[ ]    ③식당[ ]    ④숙제[ ]    ⑤약속[ ]
- ⑥없다[ ]    ⑦잡지[ ]    ⑧듣고[ ]    ⑨몇 사람[ ]    ⑩하십시오[ ]

**2. 밑줄 친부분을 주의해서 문장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밑줄 친부분의 발음을 써 보십시오.**

- ① 점심을 먹고 차를 마셔요.
- ② 사진을 찍다가 웃어요.
- ③ 오늘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 ④ 지하철 안에는 노약자석이 있어요.
- ⑤ 교실에 몇 사람 있습니까?

**3. 문장에 경음화 부분을 표시하십시오.**

- ① 한복을 입고 춤을 춥니다.
- ② 전화를 받지 않았습나다.
- ③ 학교에서 한국 노래를 듣고 노래를 배웠습나다.
- ④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겠습나다.

특히 더 효과적인 발음 교육을 위해 교사들은 베트남어와 한국어의 자음 체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김현우[5]에서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교사들이 실제 교육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한국어의 자음은 평음:경음:격음의 대립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베트남의 자음은 평음:경음:격음의 대립에 관한 정보가 없어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평음:경음:격음의 인지와 발화를 어려워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어의 폐쇄음은 /ㅂ, ㅃ, ㅍ, ㅊ, ㅌ, ㅎ, ㅑ, ㅋ/가 있고 베트남어의 폐쇄음은 /p, t, th, c, b, đ, tr, ch/가 있다. 여기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에 공통적으로 있는 폐쇄음은 한국어의 /ㅃ, ㅌ, ㅎ, ㅑ/, 베트남어의 /p, t, th, c/소리이다. 셋째, 한국어에는 존재하지만 베트남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파찰음 /ㅈ, ㅉ, ㅊ/의 인지와 발화를 어려워 할 수 있다. 넷째, 마찰음에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공통적인 부분은 /ㅃ/에 해당되는/x/소리이다. 마찰음에서도 한국어 평음에 해당되는 /ㅃ/은 베트남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베트남인 학습자들은 s계의 /ㅃ, ㅌ/의 평음과 경음의 구별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5].

발음을 잘 할 수 있게 스스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은 발음 연습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하겠다.

- 녹음기 활용 연습

녹음기 활용 연습은 발음 교정 및 언어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방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발음을 녹음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다. 녹음기를 활용한 발음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습자는 교사의 정확한 경음의 발음을 녹음한다.
- ② 학습자는 자신의 발음을 녹음한다.
- ③ 녹음한 교사의 발음과 표준 발음, 또는 원어민의 발음을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발음 개선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다.
- ④ 올바른 발음에 따라 한다.
- 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발음의 변화를 녹음하여 비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의 진척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녹음기 활용 연습은 발음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습자의 발음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

- 의성어·의태어 활용 연습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한 경음 발음 연습은 학습자들이 재미있게 발음을 익히고, 경음화의 규칙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고댁

반작반작

<그림 2>의성어·의태어를 활용한 경음 연습

이 연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경음 발음을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으며,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한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발음 연습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

- 동요 또는 노래 활용 연습

동요는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발음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 경음 발음을 연습할 때 동요의 리듬과 멜로디를 활용하면 학습자들이 더 쉽게 기억하고 즐겁게 연습할 수 있다.

① 동요



반작 반작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서쪽 하늘에서도  
동쪽 하늘에서도  
반작 반작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그림 3>동요를 활용한 경음 연습

② 노래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  
 아빠곰은 뚱뚱해  
 엄마곰은 날씬해  
 애기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그림 4>노래를 활용한 경음 연습

이 연습을 통해 학습자들은 동요나 노래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경음 발음을 연습할 수 있다. 동요, 노래의 리듬과 멜로디를 따라가며 발음을 연습하면 재미있고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 IV. 결론

본 연구는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경음화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기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고 국립국어원의 표준 발음법에서 제시된 경음화 규칙을 정리하고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한국어 교재별 경음화 교육 내용 분석을 통해 현재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3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경음화 규칙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은 한국어와 베트남어 간의 음운 체계 차이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사용 중인 교재와 교육 방법은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경음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 방안은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경음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제안된 교육 방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험과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다면, 베트남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더 많은 교재를 참고하지 못했지만 신뢰받는 교재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추천해 준 교재가 다양하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과 교육 방안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들과 학습자들이 경음화 규칙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V. 참고 문헌

[1] PHAM THI THUY LINH (2015),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 대조 분석을 통해 베트남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의 문제점 탐구 및 교육 방안」, 호치민시외국어정보대학교, 『한국학연구자료』, pp.66-78.

[2] 김영선(2004),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경음화 발음 교육 방안 연구」, 1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51-73.

[3] 이경(2016), 「한국어 교육에서의 경음화 교육 내용 고찰 및 제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pp.39-51.

[4] 이서이(2017), 「한국어 경음 및 경음화된 발음의 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현우(2019),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방안 -평음, 경음, 격음을 중심으로-」, 동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HUA NGUYEN MINH THAO (2019),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박지숙(2021),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음화 실현 양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부하프영(2021),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음운 현상과 수준별 교육 내용 연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규범 표준어 규정 (<https://korean.go.kr/kornorms/>)
- [10] 신지영 (2011), 「한국어의 경음화 규칙에 대한 재고」, 『언어학연구』 27, pp.281-295.
- [11] 창슈카이 (202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경음화 발음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8), 『연세한국어 읽기 1』, 연세대학교출판부.
- [1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8), 『연세한국어 읽기 2』, 연세대학교출판부.
- [14]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9),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1-1』,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 [1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19),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1-2』,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 [16]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20), 『새 연세한국어 듣기와 읽기 2-1』, 연세대학교출판문화원.
- [17] 김정숙(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방법」, 『한국어 교육 연구』 3.

## ĐỀ XUẤT PHƯƠNG ÁN DẠY ÂM CĂNG CHO NGƯỜI VIỆT HỌC TIẾNG HÀN

Hoàng Nguyễn Phương & Huỳnh Mỹ Nhật

**TÓM TẮT**—Nghiên cứu này đề xuất phương án dạy âm căng trong tiếng Hàn dành cho người Việt học tiếng Hàn. Vì vậy, nghiên cứu đã xem xét các quy tắc âm căng được đề cập trong cách phát âm chuẩn và phân tích nội dung liên quan đến âm căng trong giáo trình tiếng Hàn. Do tiếng Việt không có âm tương ứng với âm căng trong tiếng Hàn nên người Việt thường gặp nhiều khó khăn trong việc phát âm âm căng. Để giải quyết vấn đề này, nghiên cứu đã đề ra phương án giảng dạy nhằm giúp người học phát âm âm căng một cách hiệu quả. Kết luận, sự khác biệt giữa hệ thống âm vị của tiếng Hàn và tiếng Việt là nguyên nhân chính khiến người học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phát âm. Nghiên cứu cũng chỉ ra rằng giáo trình và phương pháp giảng dạy hiện tại chưa phản ánh đầy đủ sự khác biệt này. Mặc dù phương án giảng dạy được đề xuất với kỳ vọng sẽ giúp người học tiếp thu âm căng hiệu quả hơn, nhưng vẫn cần có các thêm thử nghiệm và kiểm chứng. Nghiên cứu hy vọng rằng phương án này sẽ trở thành tài liệu hữu ích cho cả người dạy lẫn người học tiếng Hàn.

**Từ khóa**—âm căng, phát âm căng, giảng dạy âm căng



**Hoàng Nguyễn Phương**  
 호치민시외국어정보대학교(HUFLIT)  
 졸업.  
 2008년부터 동방학부 한국어 전임  
 강사, 격영학박사 (인사관리).  
 연구분야: 한국어교육, 인사관리



**Huỳnh Mỹ Nhật**  
 호치민시외국어정보대학교(HUFLIT)  
 졸업.  
 한국 아주 대학교 재학 중  
 연구분야: 한국어와 한국어교육